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
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본어판 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0. 5. 3 ~ 2020. 5. 23 제225호



▶ 밀가루 반죽을 하고 있는 모로코 여인(제공: WMM)

지금 새 생명을 맛보라!

모로코 음식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빵이다. 빵은 이들의 주식이다. 넓게 퍼진 빵 반죽이 제빵사의 손가락 끝에서 어떤 모양으로 빚어질지 궁금해진다. 가장자리부터 동그랗게 말아갈까? 아니면 반을 포개어 접을까? 제빵사가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하려는 그 빵이 이제 곧 모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도 자신을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신다. 진흙 한 덩이 같은 우리를 뚫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모양으로 독특하고도 개성 넘치게 지으셨다. 비록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 죄로 망가져 그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전 것과는 지나가게 하시고 새것이 되게 하셨다. 스스로 창조주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패역한 인생인 줄 아시고 하나님

자신의 생명 전부를 주시며 새 그릇으로 빚어주셨다. 보라! 새것이 되었다.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보면 곧바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새 생명을 맛보게 될 것이다. 지금이다. 주를 따라라! [GNPNEWS]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함이 없느냐”(로마서 9:21)

다음 호는 5월 24일자로 발행됩니다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여호와가 말하노라”

태아 조직으로 코로나 치료제 개발... ‘윤리 논쟁’ 치열

美 트럼프 행정부, 최근 태아 조직 사용 연구 금지 결정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위해 태아의 세포 조직 사용 여부가 새로운 윤리 논쟁으로 부상했다.

최근 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에 결정한 태아 조직 사용제한 및 금지명령을 당장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고 기독교 세계관 전문사이트 TV(Traditional Value)넥스트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6월 태아 세포 조직과 장기를 사용하는 연구관련 자금을 대폭 삭감 및 정지시켰다. 비록 여성(엄마)이 선택한 낙태라고 해도 낙태에서 생존한 태아는 살아있는 인간이기에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다시 죽여서는 안 되며, 시민들의 세금으로 시민들의 동의도 없이 ‘태아 생명’이 희생되는 연구를 하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스탠포드대학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이끌고 있

는 어빙 위스먼 박사는 이러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번 팬데믹 사태 치료 개발에 더 효과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지만 시도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태아 생명 존중정책을 비난했다.

그러나 한국계 미국인 존 유 전 검찰 차장은 최근 폭스뉴스에서 ‘태아 조직 사용을 다시 허용해야 한다’는 주제로 마련된 토크에서 “의료 연구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태아조직 세포까지 사용하려는 갈망에 대항해서 바른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태아 조직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다음 단계는 연구 자료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낙태를 하게 될 수 있으며, 낙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아성 조직 재료를 얻기 위해 태아 복제도 시작될 수 있는 큰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

고 경고했다. 폭스 뉴스에 따르면 샬롯 로지 연구소의 학자들이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백신, 치료제 또는 FDA 승인이 된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중에 그 어떤 것도 낙태로부터 나온 태아 조직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 태아 조직으로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과학자나 정치인들의 논쟁은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보건부에 의하면 태아 조직과 장기사용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이 가장 많이 걸리는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 이미 오바마 전 대통령 때 강력히 추진되었던 정책 중 하나였다. 당시 국가차원에서 어마어마한 재정 지원으로 국립보건원(NIH)에 의해 연구되고 있었다.

(2면에 계속)



마음의 눈을 밝히사 (9)

당신이 원하는 것, 정말 ‘복음’입니까?

복음(福音)은 “Good News, 기쁜 소식”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롬 1:2)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기쁜 소식을 원합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문제 해결, 얻고 싶고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소원성취를 하나님을 통해 이루고 싶어 합니다. 다이어트는 신흥 종교에 가까울 만큼 선풍적이고, 성형수술을 통한 외모에 대한 집착이 한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학벌은 또 어떤가요? 예전만큼 뜨겁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지금의 한국 교회도 대입 수능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에는 매년 인파가 몰립니다. 그밖에 돈, 권력, 지위, 평판, 인기 등 갖고 싶고 되고 싶은 소원이 사 람들이 원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우리가 구하는 것도 대부분 소원성취, 문제해결의 범위를 벗어나

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되려면 이루어졌다 해도 잠시의 만족일 뿐 또 다른 것을 욕망하게 하는 허망한 것은 아닌지, 나에게 기쁨이 되지만 남에게는 고통이 되는 상대적인 것은 아닌지 보아야 합니다. 결국 복음이 복음 되려면 근본적이고 영원하고,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초등학교도 알아듣고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논리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복음이 아닌 줄 뻔히 알면서 그것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살아계



일러스트=김경선

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영생에 관한 것이며, 천국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GN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 전화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옛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허무하신가요?

전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316 전화는 가까이 있습니다.

장난전화는 삼가주세요
상담전화 ☎ 1670-3160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난민, 집 파괴돼 난민 수용소 거주



▶ 나이지리아 기독교인(출처: Open Doors 캠페)

이슬람 무장 테러단체인 보코하람에 의해 난민이 된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850명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난민 수용소에

체류 중이어서 전 세계 교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19일 보도했다.

이들은 2015년 보코하람이 7개 지방 자치주를 점령하면서 발생한 난민들로, 그동안 가톨릭교회가 운영하는 올라 교구에 위치한 난민 수용소에서 거주해 왔다. 나중에 나이지리아 보안군에 의해 보코하람 세력이 후퇴하고, 수용소에 있던 3000명 중 상당수는 집으로 돌아갔으나, 이들은 여전히 성당 주변이나 캠프에서 살고 있다. 집이 파괴되거나, 밭에 다량의 지뢰가 매설돼 있어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마두구리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조셉 베이처 목사는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종교자유 라운드테이블 회의에 참석,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했

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는 작년 12월에 나이지리아를 종교의 자유 침해가 심각하고, 기독교인 폭력이 종족청소 수준에 이르렀다며, '특별 감시 명단'에 나이지리아를 올렸다.

지난 3월에는 복음주의 진영의 지도자인 토니 퍼킨스와 조니 무어의 지원을 받아, 나이지리아의 '침묵적 학살(silent slaughter)'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시작됐다. 이 캠페인에 따르면 2001년 이후에 나이지리아에서는 학살로 인해 6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한편, 독일의 선교단체 미시오(Missio)가 낸 기부금으로 올라 지역에 850명의 난민들을 수용할 86채의 집을 짓고 있으며 집들은 난민들의 개인 소유로 기증될 계획이다. [GNPNEWS]

이란 기독교 여성인권운동가, 시위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구속... 고문과 실형 선고

이란의 기독교 여성인권운동가 파티메 마리아 무함마디(21)가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수감돼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고문을 받고, 법원 심리가 끝난 지 7일 만에 태형 10대, 징역 3개월+1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고 오픈도어선교회(OC)가 21일 전했다.

그녀는 이란이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한 뒤 이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수감됐다. 지난달 초 보석으로 석방됐다.

무함마디는 아티클18과의 인터

뷰에서 "항소하지 않겠다."면서도 "나의 범죄 혐의에 대한 어떤 증거도 없었고 당연히 석방되어야 했지만 징역형 뿐 아니라 태형도 선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또 "나와 가족들은 분명히 범죄로 여겨지는 고문을 받았으며, 이러한 고문들은 어떤 법적인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정교회 교인이라는 이유로 6개월 간 교도소에 수감됐던 그녀는 반복되는 고문과 극도로 추운 날씨에 화장실 바로 맞은편 바닥에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했

고, 24시간 동안 어떤 음식도 먹지 못했다. 그녀는 악명 높은 과르작(Qarchak) 여성 교도소에서 심한 매질과 고문을 당하고 여성 교도관들에게 알몸 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개종을 불법으로 여기는 이슬람 국가에서 보기 드문 기독교 활동가인 그녀는, 지난해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독교인은 교회에 다닐 권리가 있다는 '카흐마(Kahma)'라고 불리는 인권 운동을 벌이고 있다.

[GNPNEWS]

<1면에 이어>

美 언론, '태아 조직 치료제 보도' 윤리 측면 외면

이에 TV넥스트는 "여러 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많은 동성애 라이프를 합법화하고, 그런 질병의 치료 백신을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연구하게 하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어야 하는 상태에서 NIH 소속의 여러 과학자들은 태아 세포가 있어 야만 연구에 필요한 인간화된 쥐(humanized mice)를 먼저 만들 수 있고, 그 이후 코로나19 치료 백신제를 만들 가능성의 여부를 알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비과학적인 정책이 그들의 연구를 막아 서고 있다."면서 비난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백신 이야기 이

전까지는 주류 언론들은 태아 장기 조직을 사용한 에이즈 치료 백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거나, 있었다고 해도 매우 긍정적인 소식으로만 미화시켜 시민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19 백신제가 언급되며 폭스뉴스를 통해 전체적인 이야기가 공개됐고 그 외 기독교 언론사들과 생명 존중단체들의 뉴스들을 통해 미국 안에 얼마나 무고한 태아들의 피가 흘러지는지 밝혀졌다. 이에 워싱턴포스트, 로스앤젤레스타임스, CNN, NBC 등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 백신제가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며 시

민들의 죽음 앞에서 여유를 부리고 있다는 식의 뉴스를 내보내고 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 낸 너를 도와 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론아 두려워하지 말라(이사야 44:2)

기도 |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엄연한 인간의 몸을 치료제로 사용하겠다는 어리석은 우리의 도모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4.21 ~ 4.22)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美 85%, 코로나 완화되면 가장 먼저 집과 교회서 모임 가질 것

미국인의 85%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정책이 완화될 경우, 가장 먼저 집과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22일 보도했다. 여론조사원인 스코트 라스무센이 4월 9일부터 11일까지 1200명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0%가 봉쇄 정책이 완화될 경우 가장 먼저 소그룹 모임을 갖고 싶다고 했고, 35%가 교회 예배와 종교 행사도 반드시 재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예배에 대한 갈망을 타오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성애와 낙태와 총기살인 등 죄로 물든 미국이 이제 교회의 회복을 통해 다시 복음으로 충만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유엔, 중남미 코로나19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전망

유엔 산하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는 올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중남미 지역에 역대 최악의 경기침체가 찾아와 올해 중남미 경제가 5.3% 후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연합뉴스가 21일 전했다. 이는 1930년 대공황 당시의 -5%를 뛰어넘는 역대 최악의 침체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신의 위치에 올라가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코로나19 사태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류와 세상이 보존되고 있음을 겸손히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라크, 아내에게 휘발유 뿌리고 불 붙여

이라크 남부 나자프에서 경찰관 남편 무함마드 알마야흐리가 1년 전 결혼한 둘째 아내 말락 하이데르 알주바이디(20)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중화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이라크 현지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이후 남편에 의한 가정 폭력을 사실상 방조하는 이라크 형법 41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주여, 자기 욕망으로 또 다른 아내를 얻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폭력과 살인을 저지른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을 반역하는 법과 질서를 갖추고 있는 이라크 땅에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강청합니다.

동성애 지지하는 기독교단체 NCKK, 차별금지법 제정 주장

21대 국회 4.15총선이 끝나자마자 동성애를 지지해오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 총무 이홍정 목사)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형묵 목사)가 "제21대 국회는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지 않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는 '평등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죄로 이미 오염되어 버린 인간이 추구하는 평등과 인권이 얼마나 약할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정욕을 추구하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려가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며 사랑하신 은혜의 복음 앞에 멈춰 서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0년 5월 4일 ~ 5월 16일

5월 4일 ~ 5월 9일 ▶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5.4(0~24시) ▶ 울산 중구 / 태화교회(박**)010-9326-7767, 5.5(11~16시) ▶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5.5,8(10~12시) ▶ 경기 의정부 / 의정부열방교회(김**)010-6269-4821, 5.7(0~24시) ▶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5.8(10~18시) ▶ 경기 김포 / 꿈꾸는(구 김포전원)교회(강**)010-4128-0448, 5.8(22시)~9(4시)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010-4013-5346, 그외 4교회 진행중.

5월 11일 ~ 5월 16일 ▶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7754-1726, 5.11,13~16(10~12시) ▶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5.12~15(10~12시) ▶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5.12,14~16(19~22시) ▶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5.13(09~17시) ▶ 경남 진주 / 예수로교회(윤**)010-7925-6004, 5.15(10~14시) ▶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5.15(20~22시) ▶ 경북 울릉 / 동산감리교회(조**)010-2639-8795, 5.17(0~24시) ▶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715-3727, 그외 5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씨받이로 중국에 인신매매되는 미얀마 '카친족' 여성들

북부 미얀마에서 여성들과 소녀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다. 오랫동안 한 자녀 정책으로 아들을 선호하던 중국에서 아내를 구하지 못하는 남자들의 '신부들'로 이들이 팔려가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 여성 인권 담당관이 카친족 피해 여성들을 만나 이런 인신매매 실태를 3년 동안 조사했다. 이렇게 팔려가는 여성들은 대부분 카친족 크리스천들이다. 그 중에 많은 이들은 신앙심이 아주 깊다. 그래서 혼외 성관계를 큰 수치로 여기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피해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다. 이들 중 피해 여성들이 큰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한 일을 막아야겠다는 결심으로 용기를 내어 인터뷰에 응했다.

미얀마에서 정부군과 카친족 독립군, 카친주와 북부 산주에 있는 여러 소수 민족 무장 단체들 사이의 충돌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그러다 2011년에 미얀마 군대가 17년간의 휴전상태를 깨고 소수 민족 무장 단체들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다. 이로 인해 카친족과 기타 소수 민족들 중 10만 명 이상이 국내 난민으로 전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카친족 남성들은 정부군과 벌이는 싸움에 참여해야 하고, 여성들은 생계를 도맡아야 했다. 또 장녀가 집안을 재정적으로 후원해야 한다는 문화적인 기대도 있다. 난민캠프에는 일자리가 없고 미얀마 정부가 구호물품 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 이들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난민 캠프는 중국 국경과 가깝고, 여권 없이도 국경을 넘기 쉽다. 또 중국의 고용주들은 미얀마 사람들을



▶ 인신매매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는 미얀마 카친족 소녀(출처: thephoblographer.com 캡처)

고용하기 원한다. 이러한 상황이 인신매매에 큰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미얀마에서 누군가가 농장이나 식당에 여성 일자리가 있다고 말한다. 이런 일자리는 때로 거짓 정보일 때도 있다. 거짓으로 여성들을 모집한 사람들이 카친족 여성을 중국 가정들에게 팔아넘겨 왔다.

거짓 일자리 정보에 속아 중국 가정에 팔려

중국은 그동안 심각한 성비 불균형 사회였다. 1929년(장제스 국민정부의 북벌로 전 중국이 통일된 해)부터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한 2015년까지 그러했다.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아들은 부모님과 함께 살며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반면, 딸은 시집가면 부모와 관계가 중단되기 때문에 아들 선호 현상은 당연하게 여겨져 왔다. 덕분에 한 자녀밖에 없다면 아들이어야 한다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했다. 오늘날 중국에는 여성보다 남성이 3000만~4000만 명이나 더 많다. 따라서 결혼 적령기의 남자들이 아내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환경이 '신부' 인신매매를 낳았다.

문제는 인신매매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낯선 외부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부분 친척들이 인신매매로 여성들을 팔아넘겼다. 몸값은 미화 3000달러에서 1만 3000달러에 거래됐다. 먼저 여성들을 모집한 사람이 중국까지 안내한다. 대부분 가는 동안 속아서 먹은 약물로 잠이 들었다가 국경을 넘어 폐쇄된 방에서 깨어나게 된다.

한 젊은 여성이 들려준 사례는 전형적인 인신매매였다. 중국에 가면 수입이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올케 언니의 말에 귀가 솔깃했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족들에게 돈이 너무 필요했다. 중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올케 언니가 주는 멀미약을 먹었다. 깨어나 보니 손은 묶여 있었고 올케언니는 그녀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말한 뒤, 사라졌다. 그 집은 그녀를 산 가정의 집이었다. 그녀는 다른 방으로 옮겨져 또 다시 묶임을 당했고, '남편'이 매번 식사를 갖다 주고 그녀를 강간했다. 그녀는 마침내 아들을 가졌다. 2년 후에 그녀

는 아들과 도망을 쳤다. 그녀가 아들을 데리고 도망칠 수 있었던 것은 조금 특별한 사례였다. 대부분 인신매매된 여성과 소녀들은 한 방에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간 갇혀 있다. 그렇게 임신이 될 때까지 갇혀 있는 것이다.

인터뷰에 응한 여성은 중국에서 남자 가족들은 신부 보다 아이를 갖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들 중 일부는 아이를 낳은 후에 도망칠 수 있었다. 어떤 경우는 아이를 낳은 후에 원하면 떠나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인신매매에서 탈출해 돌아와도 비난과 정죄 받아

매년 얼마나 많은 수의 여성과 소녀들이 중국으로 팔려 가는지는 알 수 없다. 미얀마 인권위원회는 2017년에 이민국으로부터 226건의 보고가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여성 인권 담당관이 만난 여성 중 누구도 이민국에 보고된 사람은 없었다. 즉 실제 사례는 보고된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이들은 몇 주 혹은 몇 달 후에 중국을 탈출할 수 있었지만, 길게는 수 년이 걸렸다. 9년이 걸린 사람도 있었다. 18세 이하의 소녀들 12명이 잡혀갔는데 그 중에는 14세도 있었다. 그 중 2명은 두 차례나 인신매매를 당했다. 중국 경찰은 이들 인신매매된 여성들을 추방해서 빈털터리 상태로 국경에 버려두고 가기도 한다. 담당관이 만난 여성은 택시 기사에게 집으로 데려다 주기를 간청해 간신히 집에 도착했다. 집을 떠난 지 이미 5~6년이 흘러서 가족들이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는지도 불확실했지만, 달리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돌아온 여성들을 반갑게 맞아 주는 가족도 있다. 그러나 마

을 전체가 그렇지 않은 않았다. 가족 안에서도 비난과 정죄를 받는 경우도 있다. 살아 돌아온 이들 중 자식들에게 주홍글씨를 새기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 마음을 떠나기도 했다. 이런 수치심을 받지 않으려고 그냥 중국에 남을 수밖에 없는 여성과 소녀들도 있다.

한 여성은 중국에 일하러 갔다가 인신매매를 당한 후에 집으로 돌아오게 된 과정을 남편에게 설명했다. 남편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이웃 사람들로 부터 경멸받을 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신매매에서 벗어난 이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은 거의 없다. 며칠간 쉼터 제공과, 의료검진, 새 주민증 발급이다. 그중 몇 명은 제한적인 경제적 또는 직업적 지원을 받았다. 여성들을 구출하기 위해 일하는 시민단체들도 있다. 그러나 이 단체들의 재정도 거의 없는 상태다.

이처럼 버젓이 이뤄지는 불법적인 인신매매를 근절시키려는 시도가 중국과 미얀마 양국에서 있었다. 그러나 여성 인권 담당관이 만난 여성들은 모두 자력으로 탈출했다. 또 양국 국경지대의 경찰들은 인신매매를 방조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미얀마 경찰에 수차례 찾아갔지만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려 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반(反)인신매매 담당 경찰도 있었다. 심지어 어떤 경찰은 대가를 요구하기도 했다.

중국 경찰 역시 인신매매범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여성들을 불법 입국자로 취급했다. 한 여성은 중국 경찰에 의해 탈출한 중국 남자의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지기도 했다. 그 가족들이 경찰에 800달러를 대가로 제공했기 때문이다. [GNPNEWS]

카렌족, 신화 '황금서와 백인형제'로 집단 개종하며 복음화 시작

미얀마는 7개 소수 민족을 포함해 130여 개 종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다. 전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버마족과 나머지 소수 민족의 갈등의 역사는 길고 복잡하다. 결정적인 계기는 영국의 식민지 정책에서 비롯됐다.

영국은 버마족을 중심으로 한 중심부는 인도 관리들을 통해 다스리고, 주변부 소수 민족에 대해서는 전통적 지도자들의 통치를 그대로 인정했다. 영국은 또 버마의 하부 관리들을 버마족이 아닌 소수 민족에서 발탁했다. 군대 역시

버마족을 배제하고 친족, 카친족, 카렌족 등 소수 민족 출신으로 버마군을 구성했다. 그러나 1930년대 버마에서 발생한 폭동에서 군대가 버마족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이때 버마족은 소수 민족에 대한 깊은 반감을 갖게 됐다.

이러한 격동의 시기를 보낸 버마는 1948년 독립을 맞게 됐다. 외형은 버마라는 이름 대신 모든 소수 민족을 품는다는 의미로 미얀마로 국명을 정했지만, 독립이 식민지 통치가 남겨놓은 종족간의 간극을 메우지는 못했다.

자치(自治)의 희망이 사라진 소수 민족들은 종족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고 일어났다. 1948년 독립과 함께 공산당의 무장 투쟁과 함께 무슬림 거주 지역인 라카인주에서 이슬람 무장 단체인 무자헤딘의 활동이 시작됐다. 카친족은 1940년대부터 활동해 오던 반군을 중심으로 카친독립군(KIA)을 구성했으며, 카렌족은 카렌민족해방군(KNLA)을 결성했다. 100만 명 규모의 몬족은 몬민족해방군(MNLA)을 결성, 몬족 언어 사수를 주요 투쟁 목표로 무장 투쟁에

나섰다. 이들 소수 민족은 동북부 지방의 산족(600만명)이 가장 많고, 태국 국경지역에 사는 카렌족(약 500만 명), 인도 국경지방의 카친족(약 130만 명), 서부 라카인주에 거주하던 130만 여 명의 로힝야족 등이 있다.

한편, 이들 소수 민족 중 카렌족은 영국이 미얀마로 진출하던 19세기 초 '황금서와 백인 형제'라는 종족 신화를 알게 된 선교사에 의해 황금서가 성경이며 이 신화의 백인 형제가 바로 선교사로 해석



▶ 미얀마 인구의 7%를 차지하는 카렌족(출처: 유튜브 채널 Pavel Zvolanek 캡처)

되면서, 집단 개종이 일어났다. 현재 카렌족에는 기독교인의 비중이 3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GNPNEWS]

기획 | 창조 이야기 (33)

공룡은 창조 때부터 존재했던 파충류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지난 수백 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공룡이 성경 어디에 들어가는지 혼동해 왔다. 어떤 이는 “제 친구 하나가 공룡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더군요.”라고 이야기한다. 또 다른 사람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그 뼈들을 땅에 묻었다.”라고도 한다. 정상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하면 아주 바보 같아 보일 것이다.

공룡은 존재했다. 그럼 언제 살았던 것일까? 성경 속 어느 시대에 공룡이 들어가는가? 기독교인들은 공룡을 설명하려고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타협했다. 그로 인해 간격론(Gap theory)이라든지, 날-시대 이론(Day-age theory), 점진적 창조론(Progressive creationism), 유신론적 창조론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런 이론은 있을 필요가 없다.

공룡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찾아보자. 성경은 말씀한다. “태초에 하

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이는 옛세 동안에 나 여호와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출 20:11) 그가 모든 것을 6일 동안 만드셨다면 아담은 공룡을 보았을 것이다. 창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창 1:6)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 물의 장막을 머리 위에 두셨는데 그것이 홍수 때 땅에 쏟아져서 지금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물이 지표 안에 있었는데 땅의 깊은 것이 터져 나왔을 때 지표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를 증명하는 말씀구절은 많다. 시편 24편 1~2절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와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시편 136편 6절은 “땅을 물 위에 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한다. 이것은 지금 바다에 있는 물이 지표 안에 있었다는 뜻이다. 그 물들이 땅의 깊음이 터졌을 때 다 밖으

로 나왔다.

노아 시대에 무엇이 홍수를 일으켰는가? 6000년 전의 창조 때로부터 4400년 전의 홍수 때까지는 세상이 지금과 아주 달랐다. 성경은 그 기간 동안 사람이 900세가 넘도록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많은 아시아 문화에서 황금시대라고 불리는 전설이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바벨론인, 수메르인, 이집트인들은 모두 사람이 천 년 가까이 살던 때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게 사실이었던 때문이다. 정말 천 년 가까이 살았다.

파충류는 결코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룡은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살았던 커다란 도마뱀이다. 공룡은 결코 수백만 년 전에 살지 않았다.

그렇다면 노아가 방주에 공룡을 실었을까? 공룡은 방주에 있었다. 사람들은 비웃는다. “방주에 공룡이라구요? 그것들은 좀 크지 않나요?” 그렇다. 그것들은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는 600세였다. 그는 아마 가장 큰 것들을 데려올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을 정도로 현명했을 것이다. 새끼 두 마리면 된다.



▶ 텍사스주 글렌로스의 공룡 계곡 국립 공원에 너비가 40cm가 넘는 거대한 공룡 발자국(출처: texasmonthly.com 캡처)

새끼들을 방주에 실어야 할 이유는 많다. 새끼는 작다. 가장 큰 공룡 알이 미식축구 공보다도 작다. 새끼들은 무게가 덜 나가고 적게 먹고 더 많이 잔다. 그리고 더 강하다. 새끼들은 바닥에 넘어져도 일어나서 계속 뛰어다닌다. 새끼들은 홍수 후에 더 오래 살면서 더 많은 자손들을 낳을 것이다. 큰 코끼리를 방주에 싣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멍청한 일이다. 모든 것의 새끼들을 데려 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하나님이 모든 종류의 생물을 두 마리씩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다(창 6:19). 모든 종의 두 마

리씩이 아니었다. 성경은 ‘각기 종류대로, 종류대로, 종류대로…’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한다. 그리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만 데려오면 된다(창 7:22). 노아는 물고기와 곤충을 방주 안에 들여올 필요가 없었다. 물고기는 물속에 많았고 곤충은 콧구멍이 없고, 표피를 통해 숨을 쉬기 때문에 곤충은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어도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실제로 홍수가 난 곳에 물이 빠진 다음 진흙을 걷으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엄청난 수의 벌레들이다. <계속> [GNPNEWS]



선교 통신

카자흐스탄의 사각지대, 고려인 어르신… 설날 맞아 한자리에 모여

카자흐스탄 딸띠코르간과 우수토베 지역에는 지난 4년간 제가 비정부기구(NGO) 활동으로 낡은 집수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며 교제해 온 고려인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지난 설날 한국 NGO단체의 도움을 받아 이분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시고 고려인 음식도 해드리고 마음을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딸띠코르간에 갈 때마다 꾸준히 이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 신기한 것은 이분들이 정말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분들의 부모님들은 3.1운동 이후 대거 블라디보스톡에 거주하다가 1937년에 다시 이곳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의 부모님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지 이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한민족의 정서를 뛰어넘는 뜨거운 무언가가 하나 더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고려인 1세대의 나이가 95세 이상이라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이제 20여 명 정도 남았습니다.



▶ 지난 2월 고려인 어르신 설날 잔치(제공: 오요한 선교사)

제가 자주 만나는 분들은 2, 3세대 분들이 더 많습니다. 고려 말도 많이 잊어버렸지만 고려 음식이나 문화를 그리워합니다. 신기한 것은 이분들이 3.1절이 되면 3.1절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분들과 교제한지 4년 차인데 그동안 여러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나마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시는 것이 저에게 큰 위로와 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

에 윤율가(95) 할머니가 있습니다. 12살에 강제 이주되면서, 부모님을 잃고 삼촌 집에 살며 많은 고생을 한 분입니다. 이분은 지금도 제가 가면 화장을 하고 옷을 단정하고 맞아줍니다. 95세의 나이에도 5cm의 굵직한 신을 신는 멋쟁이 할머니입니다. 노래도 잘하고 고려 말도 아주 잘하십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후원해 준 한복을 가져다 드렸더니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율가

할머니 소원은 어릴 때 함께 자란 동무들을 죽기 전에 만나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분들은 딸띠코르간과 우수토베 지역에 차로 한 두 시간 거리를 두고 넓게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연세들이 많아 못 만나고 서로 소식도 모르고 지냅니다. 윤율가 할머니의 바람을 들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지난 설날 모임을 추진했습니다.

우수토베 어느 카페를 빌려 모인 그날 어르신들 50여 명과 고려인 3, 4세대 40여 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날 그 자리는 눈물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몇몇 분들은 마지막으로 만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는 꼭 복음을 나누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소수 민족으로 살아온 고려인 어르신들의 회포를 푸는 자리였습니다. 그분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절반 정도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들어야 할 분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선교지에는 이처럼 복음이 전해지

지 않은 남은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처 선교사의 손길이 가지 못한 그늘 같은 곳들입니다.

기대하기는 언젠가는 딸띠코르간 교회가 성장해서 이분들을 돌보며 함께 품을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쉬운 것은 이 모임을 제외한 윤율가 할머니는 낙상으로 다친 다리가 회복이 안 되어 정작 참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일 저녁 그분 집에 따라 찾아가서 모임 얘기도 해드리고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당신이 직접 참석한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이분들 생각만 하면 저는 공연히 마음이 급해집니다. 복음의 사각지대처럼 남겨진 고려인 어르신들이 복음을 다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주세요. [GNPNEWS]

오요한 선교사

* 선교지 소식을 제보해 주세요.

긴급한 열방의 상황이나 숨겨져 있는 부흥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독자들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5014-0406~8, 010-6326-4641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the flowers to producing ripe cherries ready for

“소원성취 기도는 끝났어요. 이제는 열방을 위해 기도해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김문화** 권사(문화교회)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어린 기도가 있었다. 우리나라 70~80년대 기도원에는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김문화 권사도 그중 한 명이었다. 김 권사는 최근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 기도를 하러 갈 수 없어 매우 안타까워했다. 그래도 유튜브로 진행되는 매일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어 숨통이 트인다고 했다.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코로나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을 드러내시고 한국 교회에 일을 하고 계신다며 최근 기도하며 받은 은혜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

-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세계기도정보 책을 보면서 매일 1시간씩 기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엄청 어려웠어요. 기도정보 책 글씨도 작고요. 지금은 괜찮지만 처음에는 나라가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고 기도정보 내용만 읽고, 생각나는 대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하는데, 즐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도 즐더라도 그 기도시간을 지키려고 했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열방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부여주셨어요. 지금은 열방을 위해 기도 안하면 너무 허전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왜 그 쉬운 기도를 못하냐. 내가 열방에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닌데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주님이 제 일생을 통해 알려주신 것이죠.”

하루에 한 시간씩 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다

- 그렇게 기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한 15년 됐네요. 복음을 알고 나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내 공로로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게 믿어지면서, 내가 바라던 이상도 없어지고 그때부터는 소원성취 기도도 끝났어요. 이제는 열방을 위해 기도해요. 열방을 위해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나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주세요.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다 보면, 그 나라를 위해 기도 못했던 것이 죄송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기도를 안 할 수 없어요. 이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죠.”
- 많은 사연이 있을 것 같네요.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되셨나요?
“결혼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우리 큰 아이를 사립학교에 보냈는데, 지나고보니 기독교 학교였어요. 학부모 모임에 가면 늘 예배를 드렸어요. 절기마다 학교 모임에 가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됐죠. 그렇게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 친정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권사로 교회를 섬기다 돌아가셨는데, 아마도 어머니의 기도로 이렇게 된 것 같네요. 지금 교회 나간 지 40년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는 우리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고 싶어서 강남 8학군으로 옮겨와서 학교를 다니게 했어요. 그러면서 새벽기도를 했어요. 대학을 가야 되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쓸데 없는 짓인데, 그때는 자녀가 서울대 가서 직장 얻는 게 큰 복인 줄 알았어요.”
- 맹자 어머니가 생각나네요.
“저에게 두 아들이 모두 우상이었어요. 친정과 시댁 모두 딸부자였는데, 제가 아들 둘을 낳았으니, 세상이 다 내것 같았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위해서만 평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첫 아들은 원하는 학교에 못 들어가서 둘째에게 기대

대학 입학과 성공을 위해서 기도 했죠. 그때는 잠도 2~3시간만 잤어요. 그렇게 수십 년을 했어요.”
자식 위해 기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상이었다
- 대단한 열정이시네요. 아드님을 원하는 대학에 갔나요?
“아니요. 작은 아들은 엄마가 원하는 서울대 간다고 재수했는데, 결국은 다른 학교를 갔어요. 근데 대학생이 되고 나서 방학 때는 중국에서 탈북자를 섬겼어요. 한번 가면 방학 끝날 때까지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러면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기도원에 가서 밤새 우는 거예요. 아들이 떠날 때는 자기 옷을 가방에 잔뜩 가져갔다 돌아올 때는 허름한 가방에 속옷만 가지고 돌아왔어요. 옷이 없는 탈북자들에게 다 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공부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된다고 했죠. 그때는 그게 선교하는 것인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아들은 그때부터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 그렇게 애지중지 하던 아들이 선교를 한다고 할 때 어땠어요?
“반대했죠. 저는 아들을 떼어 놓는 것 못 살았어요. 사실 두 아들이 6개월 사이로 군대에 갔는데, 아들에게 고기를 먹고 싶어서 거기도 먼데 한 달에 한 번씩 고기를 싸

설교하는 것 보면 너무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금식기도원으로 들어갔죠.”
- 기도하고 응답은 받으셨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선교사 하라는 말씀을 주셨으면 나에게도 말씀해 주셔야 아들을 보내지 않겠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옛날 일이 문득 생각났어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교회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아들이 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아멘했죠. 둘째가 3살 때였는데,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날 생각이 난 거예요. 주님이 ‘둘째를 나한테 바친다고 하지 않았냐. 승용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다고 해놓고 못한다고 하면 되겠나 하고 짐을 싸서 내려왔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보내야겠다 생각했어요.”
- 그래도 주님께 드린 약속대로 순종하셨네요.
“그렇게 내려왔는데도 보내는 건 너무 어려웠어요. 아들한테 어릴 때 선교사로 바치기로 했었다는 얘기도 안 해줬어요. 그 말에 더 선교사 한다고 할까 봐요. 이 얘기는 아직까지도 아들이 몰라요(웃음). 하나님한테 약속한 건 있고, 얼마나 골방에 앉아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만 하면 눈물이 한없이 나왔어요. 왜 장로님 아들들도 많고 목사님 아들도 많은데, 왜 믿음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의 아들이 선교사를 해야 하는지, 울다가 고맙다고 하기도 했다가 그랬어요. 나중에는 주님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는 찬송을 주셨어요. 다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원 권사님께 아들이 선교를 한다는데 내 맘이 안 편하다고 하니 기도하라고 해서 또 70일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루에 100번씩 불렀어요.”

청년이 소개해 준 복음학교에 다녀오더니 주님이 부르셨다면서 한 선교단체에 헌신을 했어요. 근데 훈련받는 1년 동안은 연락도 못한다는 거예요. 군대에 갔을 때도 한 달에 한 번은 봤는데 1년 동안 못 보니까 밤이 입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때 살이 빠져서 몸무게가 43킬로까지 됐죠. 시간이 좀 지나고 아들이 저에게 복음학교를 가 보라고 했어요. ‘나는 안 간다. 너 하나로 만족한다.’고 했어요. ‘복음학교에 가야 복음이 있냐? 복음으로 여태까지 살았는데 뭘 복음학교를 가냐?’면서 안 갔죠. 그런데 계속 일정을 알려주면서 권면을 해서 결국 가긴 갔어요. 학교에서 강의시간이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아들 대학 보내려고 기도하는 권사 얘기, 아들이 선교사 되겠다고 하는데 막는다는 권사 얘기. 일주일 동안 내가 잘못된 것만 생각나서 회개하고 울고만 왔어요.”
- 그러셨군요.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새롭게 아셨나요?
“근데 강의 한번 듣는 것으로는 이해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복음학교 섬김이를 8번 했어요. 갈 때마다 분명 같은 내용인데도 처음 듣는 얘기 같았어요. 6번째 갔을 때, 비로소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는데 왜 깨닫지 못했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구나. 우리 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했구나 이해가 됐어요. 여기에서 떨어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중보기도학교 훈련을 받고 섬김이도 했어요. 복음학교를 한두 번 해서 제가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되니까 계속 갔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며칠 있으면 옛날 습성이 나오니, 그래서 여기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 같아요. 그렇게 오늘에 이르렀네요.” [GNPNEWS]



▶ 체코 아웃리치를 통해 기도 응답으로 체코의 전도자들을 만났다.(제공: 김문화 권사)

를 걸었죠. 아이들의 삶이 나보다 나은 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열심히 기도원에 다녔어요. 그때는 평화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였는데, 장사 끝나고 밤 12시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새벽 4시에 돌아왔어요. 70일씩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네 번 했어요. 280일을 연속 기도한 셈이죠. 70일을 하는 동안 하루라도 빠지면 다시 시작했어요. 그럴 정도로 오직 우리 아이들 일류

가지고 갔죠. 한번은 대장이 이제 그만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면회 가서 하루라도 데리고 나오면 보초 서는 것도 덜하게 될까봐 매달 갔어요. 둘째 아들은 복학하고 어학연수도 다녀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선교사 한다고 할 때 제가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선교사 할 거면 신학을 해서 목사를 해라.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와서

자식을 기쁨으로 선교사로 보내다

- 주님이 선교사 어머니의 마음도 이렇게 준비시켜 주셨네요.
“그러는 동안 아들은 결혼을 하고 이제 중국으로 선교를 간다면서 신혼살림도 다 정리해서 나눠주고 가방 2개만 놔두고 나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교회

Y.K.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복음기도신문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나는 기도하리라 (3)

“기도는 고통이 될 때까지 구하는 것”

“하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삼상 2:10~11) 원래 나는 기도하던 여자였다. 기도 밖에는 할 줄 몰랐다. 기도 없이는 못 사는 여인이었다. 즐거울 때도 기도했을 한나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고 있다. 왜?

‘기도의 여인’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 육적인 여자, 대적 브닌나가 기도하는 영의 여인 한나를 조롱하고 공격한다.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영의 사람에게 이 말처럼 듣기 힘든 조롱의 말은 없다. 한나는 자책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날 잊으셨나.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게 부끄러운 것이 있나.’ 그렇지만 한나가 의지할 곳은 주님 밖에 없었다.

‘믿음으로 사는 건 좋지만, 복음

은 너무 놀랍지만 진짜 어렵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너무 힘들다.’며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이 괴로워서 포기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복음으로 한번 제대로 목회 좀 해보겠다고 결심했다가 너무 어려워서 어느새 그냥 원위치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다.

그러나 한나는 달랐다. 마음이 괴로웠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갔다. 기도하고 기도했다.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더 괴로웠다. 괴로워서 통곡했다. 누군가의 말처럼 ‘기도가 고통이 될 때까지’ 기도했다. 고통이 오면 더욱 기도했다. 고통이 더할수록 더 기도했다. 대단한 용기나 의지를 가졌기 때문일까?

젖먹이 아이는 엄마 품 떠나면 죽는 줄 안다. 그 아이는 밤새 울 능력이 있다. 의지 때문에 우는 게 아니다. 대단한 각오와 결심이 있



일러스트=노주나

어서도 아니다. 엄마 떨어지면 죽으니까, 엄마 없으면 못 사니까 우는 것이다. 누가 끝까지 매달리는 줄 아는가? 대단히 잘나고, 의지 충만하고, 똑똑하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일까? 아니

다. 결코 아니다. 너무나 무약해서,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 떠나면 죽는 줄 알고, 하나님 손길 놓치면 못 사는 사람들이 끝까지 복음 편에 서서, 기도의 그 자리에 남아서 매달린다.

기도의 삼중적(三重的) 약속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황금 구절이 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 7:7) 이 말씀은 ‘기도하라, 더욱 기도하라, 끝까지 기도하라.’는 뜻이나 다름없다.

한나는 기도가 ‘운명’이 된 사람이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연약한 여인 한나의 태를 ‘일부러’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매달린 딸에게 잔인할 정도로 아이를 안 주셨다. 시련의 폭풍이 더 거세게 몰아쳐도 안 주셨다. 기도가 통곡으로 바뀌었다. 그래도 안 주셨다. 그런데도 한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2018년 1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114년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복음과 기도 24-365** **복음과 기도미디어** gospel & prayer media

1년 52주 연속. 연쇄. 초점집중 기도를 위한 기도정보 모음집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8

1년 52주 연속. 연쇄. 초점집중 기도를 위한 기도정보 모음집

복음과 영적전, 복음의 디아스, 복음에 반역하, 복음의 일어날, 복음과 박해받, 복음의 영광

▶ 1~6권 기도정보집은 특별한 개정이 없는 한 계속 사용
▶ 긴급기도정보 각 권 별책 전 6권
정가 74,000원, 세트가 66,000원 (총 12권)

느헤미야52기도가 저희 부부를 살렸습니다!

“느헤미야52기도 1권 복음의 영광에 대한 내용으로 만들어진 기도정보를 읽고 기도하다보면 내 옛자아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의 은혜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오직 다 이루신 주님만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과 느헤미야52기도가 우리 부부를 살렸습니다” _국 000선교사 부부

구입문의 Purchase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G&P 신간 | 순전한 선교

20세기 초 베트남에 새겨진 선교사의 순전한 기록

기독교인이 전혀 없는 곳에서 복음은 어떻게 전파될 수 있을까? 대화 한 마디 할 수 없는 이역만리에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며, 모든 것이 낯선 땅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100년 전 인도차이나 반도의 한 축에 놓여 있는 베트남에서 이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책이 최근 발간됐다. ‘베트남 교회 형성에 관한 스테빈스 선교사의 기록’이란 부제가 붙었다. 20세기 초 복음이 베트남에 들어오게 된 과정, 또 인근 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그리고 소수 부족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흘러가게 됐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담백하게 담겨져 있다. 때로는 병들고, 고통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이들을 가로막기도 했지만, 주님의 손길로 다시 일어섰다.

역자 이경우 선교사는 인도차이나반도 주재원으로 근무 중 헌신한 이후, 1993년부터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비롯한 인도차이나반도 전략지역을 다녔다. 그는 주로 현지인 사역자들, 소수부족 성도들과 교류하던 중 현지인 목사로부터 베트남어로 기록된 한 권의 책을 받았다. 10년의 기간 동안 틈틈이

번역했다. 베트남 선교의 초창기 기록을 담은 이 책에 등장하는 지역은 역사가 모두 직접 밟아본 곳이며, 몇몇 등장인물들 역시 개인적으로 긴밀하게 교류하는 사역자의 선친들이었다.

베트남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후원자들은 이 책을 통해 선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이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어떤 진리를 품고, 무엇을 보고 생각했기에 그토록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까? 한 선교사의 순전한 기록을 통해 독자들이 인생의 새로운 빛을 발견할 수 있기를 역자는 기대한다. [GNPNEWS]

I.R.Stebbins 저 | 이경우 옮김
| 아테오에 | 359p
| 1만 7천 원 | 2020

애통하는 심령 주신 은혜의 교통사고



일러스트=고은선

아이들을 이발시키고 오던 길이었다. 두 아들이 내 앞에서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갑자기 내 몸이 무언가에 쿵 부딪히고 봉 날아 땅에 떨어졌다. 블랙박스에는 모두가 경악할 만한 사고가 담겨 있었다. 그런데 검사 결과 머리와 귀만 조금 찢어졌을 뿐, 어느 한 군데 골절된 곳이나 다른 이상이 없었다. 주님이 손가락 하나 부러진 곳이 없이 지켜주셨다. 정말 주님의 은혜였다.

다급했던 마음에 남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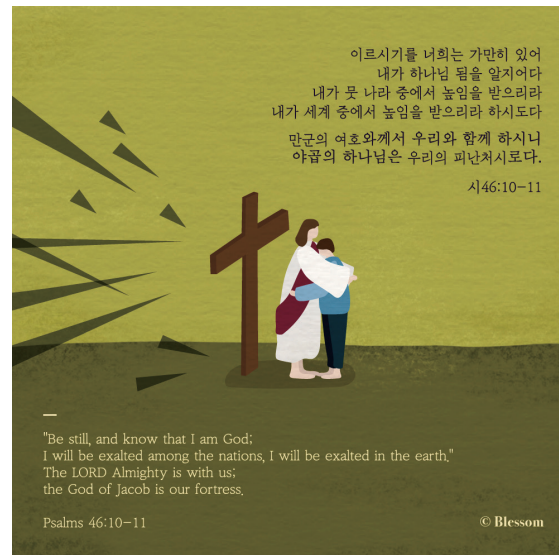
연락을 드린 선교사님들이 달려오셨고, 혼잣말처럼 하는 말씀이 내내 마음에 남았다. ‘주님이 우리를 겸손케 하시려고...’ 궁금했다. 주님이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일까? 검사 결과로는 이상이 없지만 머리가 찢어졌기 때문에 24시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귀나 코에서 물이나 피가 나오면 뇌에 이상이 생긴 징후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의료진이 말했다.

그날 밤, 자고 있는데 귀

에서 뜨거운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렀다. 순간 남편과 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오만 가지 생각에 잠시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혹시 내가 제정신으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이게 마지막인가?’ 달려온 간호사가 열 체크를 해보고 괜찮으니 안심하라고 했다. 다음 날 아침, 그 흘러내린 액체는 귀가 찢어진 곳에서 생긴 진물이 귀를 타고 나왔던 것이다. 아찔했다. 또 한 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다.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다 불과 며칠 만에 갑자기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했다. 쉬어야 하는데 사고 전과 다름없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밀려왔다. 그런 상황과 가족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곧 깨달음이 왔다. ‘죄에 익숙했던 내가 이제 은혜에 익숙해져 있구나...’ 깊은 한숨을 내쉬며 털썩 무릎을 꿇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전 소망이 없습니다. 날 불쌍

히 여겨주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통회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했다. 그때 나와 동일한 조국 교회의 모습이 보였다. 코로나 사태를 당하고 보니 우리가 드릴 수 있었던 모든 예배도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도, 기쁜 소식을 외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인줄 몰랐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우리의 상태는 위기였다. 비로소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게 되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소서. 열방 곳곳에서는 주님을 부르짖고 있는데 이 때에 우리의 위기의 상태를 괜찮다 여기게 하지 마시고 상한 심령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은 날 기도의 골방으로 초대하셨다. 우리에게 위기임을 알게 하신 것은 살리기 위한 사랑이지, 멸하려 함이 아니다. [GNPNEWS] 고상미

그림 묵상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I will be exalted among the nations, I will be exalted in the earth." The LORD Almighty is with us; the God of Jacob is our fortress.

Psalms 46:10-11

© Blessom

그림=이수진

사망아! 어디 한번 썩 보라!

사탄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가만 두지 않는다. 경건하게 살기로 마음먹는 순간 조롱과 비웃음을 쏟아낸다. 정직하려는 동시에 불법과 탈법이 찢러댄다. 사랑을 베풀려는 순간 배신의 창이 날아온다. 언제나 원수 화살은 나를 향해 시위가 당겨져 있다. 그러나 항상 내 앞엔 십자가의 주님이 계신다.

사망아! 어디 한번 썩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GNPNEWS]

Y.K.

부흥을 위하여

탈북민 출신 첫 지역구 국회의원 탄생... 북, 동경심 품을 것

이 시대 가장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지난 15일 열린 제 21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2명이 탄생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는 서울시 강남구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탈북민 사상 처음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북한 꽃제비 출신인 지성호 전 나우 북한 인권 단체 대표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 간부 출신 태영호 전 공사와 꽃제비 출신의 북한 인권 운동가인 지성호 전 나우 대표가 국회의원이 된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에 희망과 동경심을 품게 할 것이

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영환 객원연구위원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 역사상 탈북민 2명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것은 역사에 남을 큰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국회에 북한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당당한 대표가 두 명이나 생겼으니 가슴이 뿌듯하고 감격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영호 전 공사는 전직 북한 외교관으로 북한에서 간부를 지냈던 인사이다. 그런 그가 한국의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이는 북한의 당·정·군대의 간부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 소식을 알게 될 북한의 당과 정부 그리고 북한군의 간부들은 내심으로는 태영호 전 공사의 당선을 축하할 것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과 동경심도 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 전 공사는 한 언론에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이

유에 대해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북한 인권과 북핵 문제의 증인이었듯이 북한에는 자유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증거가 될 것"이라면서 "평생을 북한의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태영호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 지역에 대표자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의 주민들과 엘리트들이 확인하는 순간,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통일은 성큼

한걸음 더 다가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민주주의 산 증인

또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지성호 전 대표에 대해 고영환 연구원은 "태 전 공사의 당선은 북한 간부들에게, 지성호 전 대표의 당선은 북한 주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태 전 공사의 국회의원 당선보다도 더 놀라운 것이 북한 꽃제비 출신

으로 한국에 온 지성호 전 대표의 국회의원 당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서 꽃제비로 먹을 것을 구걸하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하고 권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됐으니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지성호 전 대표의 당선은 현재 북한에서 1인 지배 체제 하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는 북한 인민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탈북민들이 창당한 남북통일당도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출마시켰으나 유권자 총 투표의 3%를 획득하지 못해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다. 또한 기독교자유통일당의 후보로 탈북민인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도 출마했으나 기독교자유통일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출을 위한 유효 득표수를 얻지 못하면서 낙선했다. [GNPNEWS]



▶ 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탈북민 태영호 의원(좌)과 지성호 의원(우) (출처: 유튜브 태영호TV, whitehouse.gov 캡처)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체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것에 대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많지만, 그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이 첫걸음조차 떼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기독교에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이 있지만 이것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극히 드물다. 오늘날 기독교가 높은 영적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 '더 깊은 그리스도인의 체험'으로 들어가라고 권하는 성경의 교훈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회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초보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것에 만족한다. 둘째, 그리스도인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럴 마음이 없다. [GNPNEWS] 성령님 (A.W.토저, 2006)에서 발췌



뷰즈 인 아트
Views in Art

렘브란트의 <엠마오의 저녁식사>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렘브란트의 <엠마오의 저녁식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 그는 같은 내용으로 여러 점을 그렸으나, 작품마다 조금씩 관점이 달랐으며, 가장 먼저 그려졌던 이 작품이 가장 독특하다. 주제는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도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에 관한 얘기까지 나누었으나,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까지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얼마나 부활을 바랄 수 없었길래 이렇게까지 몰라본 것일까. 렘브란트의 관점이 이 부분과 관련이 있다. 그의 시선은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바랄 수 없었던' 캄캄한 상황에 맞춰 있다. 이를 강조라도 하듯 작가는 예수님을 검은 실루엣으로 그렸다. 빛을 받아 부각된 인물은 깜짝 놀란 제자이다. 또한 성경에는 두 제자로 기록

되었는데 다른 이는 보이지도 않고, 단지 멀리에서 무엇인가 찾고 있는 듯한 인물이 그 제자가 아닐까 추측만 가능할 뿐이다.

바랄 수 없었던 어두운 심령에 비춰진 믿음의 빛

이처럼 어수선하고, 어둡고, 또 너무 함축적인 그의 그림은 의미를 한 번에 알아채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이 때문에 작가의 깊이 있는 생각이 전달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누군들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믿음을 가졌겠는가. 그렇지만 렘브란트는 못 알아본 행위를 변호하지는 않는다. 다만 믿음의 빛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믿음이 결코 우리 본성에서 나올 수 없음을 설명했다. 정말 우리는 믿음보다 믿음 없함에 훨씬 더

익숙하다.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절망과 슬픔,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도, 사용할 수도 없었다. 그 상황은 마치 그림 속의 어둠과 같다. 그런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눈을 밝혀주신 분은 주님이셨다. 게다가 주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사실도 이때 알 수 있었다.

혹시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예수님을 보았지만 검은 실루엣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여전히 의심이 들고 이 때문에 자책이 된다면, 그럼 믿음은 소멸된 것일까? 존스는 인간으로서 의심이 들 수 있다고 한다. 의심은 확신의 반대이지 믿음의 반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믿음은 나로 인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믿음이 발휘되기 위해 분명 확신은 더욱 견고해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



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GNPNEWS]

이상윤 미술평론가

작품설명: 렘브란트 반 레인, <엠마오의 저녁식사>, 1629년, 나무판넬에 유채, 37.4 cm X 42.3 cm, Musée Jacquemart-André, Paris.

다음세대 성교육 문제 (1)

저령화하는 성범죄, '성평등 중심의 성교육' 전면 재편하라는 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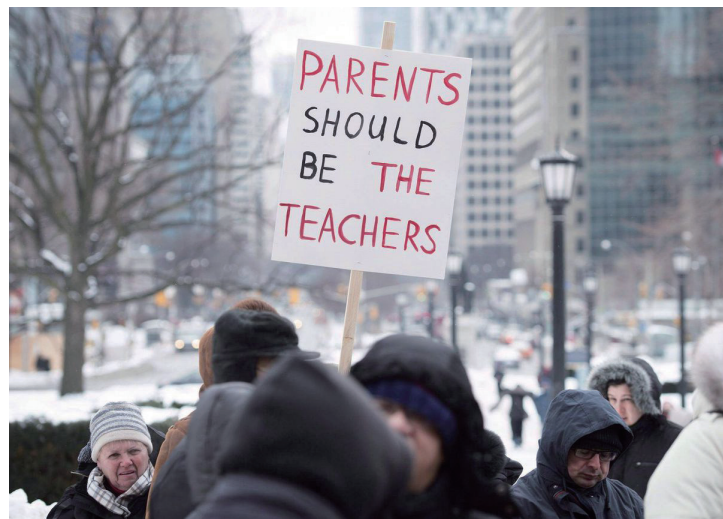
최근 초중고생들이 성적 가해자와 피해자로 함께 연루되어 있는 n번방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성범죄에 연루되는 사람들의 나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이런 현실을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마련을 해야 할 시점이다.

최근 이 같은 청소년의 성문제에 관심을 갖는 학부모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동성애를 인정하는 젠더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성평등 중심의 초중고 성교육을 개편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현재 세계 곳곳에서 공립학교의 급진적 성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한 학부모들이 이에 대항해 처절하게 맞서 싸우는 모습이 남의 일이 아닌, 우리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아산시 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가 발표한 교과서의 성교육 문제점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 학부모들은 동성애, 젠더 성교육 과정에 2015년 4월 반대 투쟁을 시작했다. 2016년 당시 동성애자인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급진 성교육 도입으로 2000명의 초등학교생들이 6월 9일 공립

학교를 자퇴했다. 내셔널포스트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2015년 9월 초등생 성교육 내용을 개정한 이후, 무슬림이나 시크교 가정의 학생 2000여 명이 성교육 내용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자퇴를 하거나 사립학교로 전학한 바 있다.



▶ 개정된 성교육에 반대하여 퀸스파크에 모여 시위하는 토론토 온타리오주 학부모들(출처: theglobeandmail.com 캡처)

지난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1600명 이상의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이 나이에 적합하지 않은 성교육으로 청소년들에게 위험한 성행동을 촉진할 것을 우려해 새 성교육 폐지 성명에 동참했다.

2018년 9월 캐나다 BC주 1100개 이상의 교회 리더들이 급진 성교

육 폐지 싸움에 동참했다. 또 미국 샌디에이고 학부모들도 성교육에 반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치노벨리 교육구에서 2018년 9월, 700여 명의 학부모들이 성교육 시간에 '자녀 열외권'을 요구했다. 젠더, 섹슈얼리티, 성적 지향, HIV예방, 성병, 재생산

해석하고 성혁명이 여성과 남성을 모두 해방시켜준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합리적인 성행위 이진 아니건 간에 성행위는 모든 금지된 것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태도이다. 또한 이성애는 여성 억압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있다.

2019년 2월 14일 미국 라디오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학부모들은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포르노 수준의 성교육을 의무화하자 학부모들은 등교를 거부했다. 7~12학년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성적체성, 성적 지향 등이 포함된 성교육 커리큘럼에 대해 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재에서는 그림을 통해 다양한 성관계 체위를 알려주고 자위기구를 구입할 여유가 없다면 다른 물건을 이용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 구강성교와 항문성교, 다자성교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누구나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고 기술해 아직 성적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에나파크 지역에서 애프터스쿨을 운영 중인 백향미씨는 "교육 내용은 입에 올리기에 민망할 정도"라고 말했다. [GNPNEWS]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0. 4. 9 ~ 4. 23 (가나다 순)

개인
강주선 고은영 김경선 김다경 김선희 김유남 김정희 김지영 박성규 안병운 장근혜 정영숙 차상복 차익수 차인순 최순덕 최정숙 황하임

교회 및 단체
게르교회 고현교회 모리아선교회 문광교회 산돌교회 새순교회 열매교회 은혜선일교회 주소광교회 참종양터라교회 험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0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복음기도신문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